

02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학습 목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관점이란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태도, 또는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은 오랫동안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지만, 각 문제의 원인, 결과, 대처 방안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두 이론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세 번째 이론은 미시적인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기능론과 갈등론은 숲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관점이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나무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관점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기능론

기능론은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본다. 가장 흔한 표현으로, 사회를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기능론은 사회를 비교적 안정적인 체계로 보는데, 사회의 모든 부분은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의 유지에 공헌한다고 본다. 이처럼 기능론은 개인들이 아니라 전체 사회 체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사회의 모든 부분은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조의 한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이 개입하여 균형을 이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의 유지에 공헌한다고 본다.

기능론자들은 사회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 교육, 경제 등 사회제도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제도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이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읽기 자료 기능론의 대표 학자: 에밀 뒤르켐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다. 기능주의 사회학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뒤르켐은 전통적인 사회적, 종교적 연대가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는 근대 사회가 어떻게 통합과 응집성을 유지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근대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뒤르켐은 사회 현상의 이해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뒤르켐은 사회는 '각 부분의 합 이상'의 존재라고 주장했으며, 사회적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은 각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초월하는 객관적인 실체이다.



에밀 뒤르켐 (1858-1917)

갈등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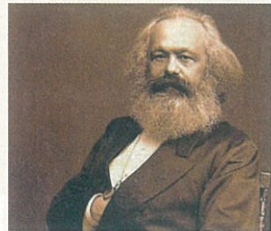
갈등론은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본다. 돈,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이 차지하려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의 경쟁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론은 권력과 부의 획득을 위해 갈등하는 집단들의 상호 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기능론과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접근의 이론이다. 예컨대 갈등론은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이 교육, 보건, 주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한다.

갈등론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면 지배 세력은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특히 갈등론은 계급, 인종, 종교, 성, 연령 등 사회문제로서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관심을 둔다.



읽기 자료 갈등론의 대표 학자: 칼 마르크스

철학자,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이다. 인간 사회는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지배 계급(부르주아)과 임금을 위해 노동을 파는 노동 계급(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투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의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며, 문화적, 정치적 조건은 경제적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칼 마르크스 (1818-1883)

상징적 상호 작용론



호찌민(1890-1969)
베트남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



안창호(1878-1935)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애국 계몽 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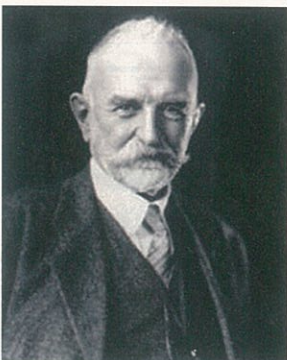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람들 간의 개별적 상호 작용이 그들의 행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둔다. 집단이나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능론, 갈등론과 달리 미시적 접근 방법이다. 몸짓, 말, 이미지와 같은 상징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이러한 상징의 의미에 따라 서로 상호 작용한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현상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상징들에 내포된 의미들을 배운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베트남 독립운동가 호찌민의 사진은 별 의미가 없게 보이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은 독립운동과 교육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 모두 독립운동가였지만 보는 사람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을 준다. 요컨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서는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규정하는 현상이 그 현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읽기 자료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대표 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



조지 허버트 미드 (1863-1931)

미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대표적 사회심리학자이며 시카고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미드에 따르면 사회는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상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준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을 이용하여 자아 개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다른 정체성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사회를 창조한다.



1 기능론

기능론자들은 모든 약물이 고통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중독 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 학교, 병원에서는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2 갈등론

갈등론자들은 사회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약물남용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과정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짐을 지적한다.

3 상징적 상호 작용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자들은 약물 남용이나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정은 약물의 효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약물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예컨대 어느 기업체 대표가 저녁 식사 때 맥주 한 잔을 마신다면 사업상 행위라고 보는 반면,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마신다면 위험한 행위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약물 남용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A관점

약물 사용자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약물 사용 빈도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약물 남용으로 사법 당국에 의해 처리되는 비율은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에 훨씬 많이 발생한다.

B관점

약물 남용의 규정은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술, 담배야말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에게는 합법화 되어 있다.

C관점

약물의 사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정 약물이 운동선수의 기록 향상을 위해서 몰래 남용하는 경우와 암 환자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① 약물 남용을 바라보는 A, B, C 관점은 각각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②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 현상 중 하나를 골라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인 관점에서 그 현상을 설명해 보자.